

돈황 막고굴 불교예술, 런던서 재조명

실크로드의 유산, 특히 불교예술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이 영국 런던에서 10월 26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 개최된다.

BBC는 10월 23일 "V&A 사가 '중국 회화의 최고 걸작전' 을 마련한다"고 보도하고, "돈황 막고굴의 불교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 1천 년 간의 불교회화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실크로드의 유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막고굴로, 현재 남아있는 동굴은 500기 남짓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한 실크 두루마리 원고나 벽화, 조각들은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컬렉션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돈황의 불교회화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한 장 홍싱(Zhang Hongxing, V&A 사) 수석 큐레이터는 "돈황은 마치 1천 년을 주제로 한 갤러리와 같다"며 "이곳의 유산은 14세기까지 서로 다른 형식과 도해 등으로 변모해 가는 불교 예술의 흐름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라고 말했다.

실크로드의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6500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역로이다. 이중 돈황은 주요 상업 중심지로 각종 문물, 특히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서로 교류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막고굴과 같은 동굴 사원이 처음 들어선 것은 약 350년. 그 후 해상 항로의 발달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감소하면



영국에서 2014년 1월 19일까지 '중국 회화의 최고 걸작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돈황막고굴의 불교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V&A 사, '중국 회화 최고 걸작전' 개최 10월 26일~2014년 1월 19일

"불교예술 통해 동시대 정치·문화·사회 엿보는 기회 될 것"

서, 사람들이 발견을 돌리기 시작한 10세기까지 수많은 동굴 사원이 생겨나고 잊혀졌다.

돈황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오래된 실크 원고와 그림 등이 동굴에서 발견되면서이다.

"1천 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동굴의 어둠과 사막의 건조한 기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한 장 홍싱 수석 큐레이터는 "현존하는 500기의 동굴은 관

련 학자나 예술가들 사이에 '도서관 동굴'이라고 불리며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며 "V&A의 이번 전시회는 돈황의 불교예술이 동시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문물을 어떻게 흡수·동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1천 년 동안 그려진 벽화를 이은 길이가 2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이번 전시회 기획자 케이트 브라이언(Kate Bryan, Fine Art Society) 대표는 "회화 연구가들은 돈



전시회 기획자 케이트 브라이언

황 막고굴을 '미술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이번 특별 전시회는 막고굴을 통해 동시대 정치·문화·사회 등을 엿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실크 두루마리 원고, 중국 왕조의 품목을 엿볼 수 있는 회화 등을 접할 수 있다"며 V&A 사의 '중국 회화의 최고 걸작전'의 의미를 새긴 BBC는 "특히 이번엔 전시될 회화 중에는 동시대 불교 장례 의식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작품이 많다"며 "죽은 자의 환생을 바라는 간절함은 전해주는 회화 상의 인물을 살피는 것도 이번 기획전을 관람하는 묘미"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키요미즈, '분홍빛 사원'으로 변모

사원 전체 LED 전등으로 교체 ... 전기세 절감



일본 유명 사찰 키요미즈 사원이 사원의 모든 전등을 LED로 교체해 '분홍빛 사원'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간다.

본의 유명 사찰 키요미즈(Kiyomizu Buddhist Temple)의 스님들이 성공적인 '분홍빛 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도쿄 타임즈(Toko Times)〉지는 10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키요미즈가 사원의 모든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이를 매개체로 한 포교에 나서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 이곳 키요미즈를 방문하고 있다"며 전제한 오니쉬(Onishi, 키요미즈 주지) 스님은 "관광객을 위해 사원의 모든 전등을 밝혀야 하는데, 그 비용 탓으로 사원의 재정은 더욱 궁핍해졌다"며 "최근 사원의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 전기세는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그 여유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타임즈(Toko Times)〉지에 따르

면, 키요미즈 측은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LED의 특성을 살려, 키요미즈 전체를 '시민들의 사유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현재 키요미즈는 밤마다 분홍빛 사원으로 변한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힘을 더하고,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취지에서 사원 전체를 분홍빛으로 수놓고, 불빛을 바라보는 키요미즈데라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전기세 절감 비용을 이들을 환자의 치료비로 환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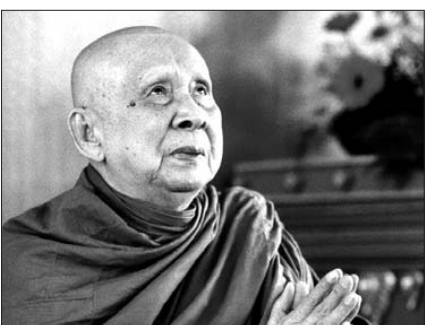
〈도쿄 타임즈(Toko Times)〉지는 "요즘 키요미즈 사원은 '분홍빛 사원'으로 불리고 있다"며 "키요미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원의 동쪽 언덕으로,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불교 최고지도자 솜뎃 승왕 열반

10월 24일 향년 100세로 입적

태국 불교 최고지도자인 19대 승왕 솜뎃 프라 니나삼바라(Somdet Phra Nynasamvara)가 10월 24일(현지시간) 열반했다. 지난 10월 3일 100세 축하연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학식과 덕이 높기로 칭송 받았던 태국 19대 승왕 솜뎃 프라 니나삼바라 스님이 10월 24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열반했다.

스님은 1913년 태국 칸차나부리(Kanchanaburi) 지역에서 태어나 14살에 출가, 1989년 우리나라 중정에 해당하는 19대 승왕에 올랐다. 그 후 20여년 동안 태국 불교 종단과 승려를 이끌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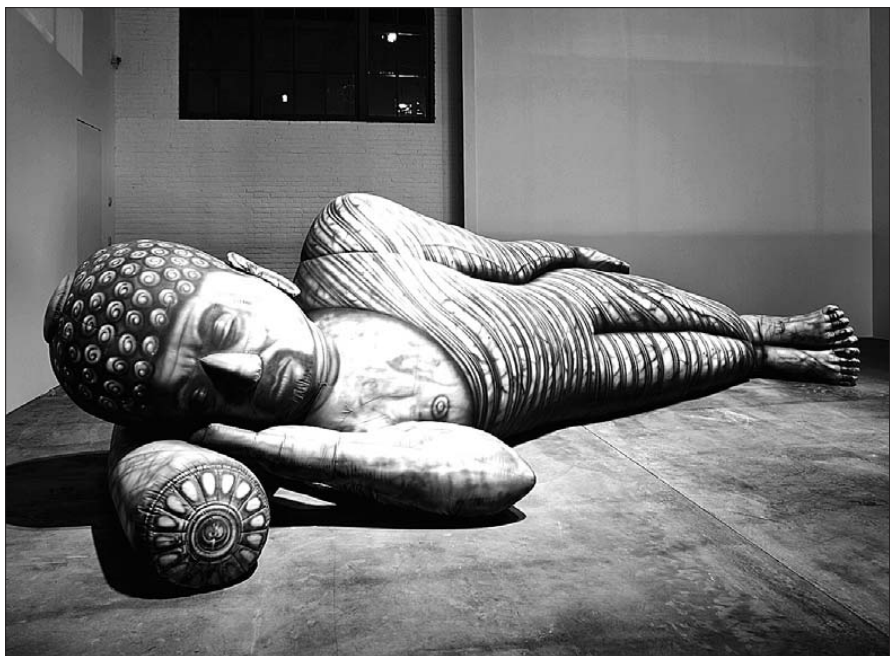
달라이라마도 여러 번 찾아와 지혜를 구했을 만큼 칭송받았던 솜뎃 스님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익혔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했다.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스님은 영어로 불교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솜뎃 승왕은 건강 이상으로 2002년 2월 이후 방콕 쫄라롱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이달 초에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장기간 승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2004년부터 솜뎃 승왕을 대리해 온 스님도 올해 입적했다.

후임 승왕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정식으로 임명한다.

태국 총리실은 솜뎃 승왕의 열반을 추모해 전국 관공서에서 사흘간 조기를 달고 공무원들이 보름 동안 검은색 상복을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현진기자



풍선으로 환생한 석가모니

의 조각가이자 설치 작가 루이스 디소토(Lewis Desoto)는 열반 당시의 부처님을 7미터 길이의 대형 풍선으로 제작했다. 공기를 주입하면 팽창하게 살아나고 반대로 공기를 빼면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몸도 왜소해진다. 공기를 넣는 데는 10분 빼는 데는 30분이 걸린다. '덧없음, 일시성'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대로 관람객 또한 '풍선 부처님' 앞에 앉아 명상을 할 수 있다. 석가모니가 열반하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했다. 금색, 파란색, 갈색 세 가지 색으로 제작된 작품은 각각 샌디에고 현대미술관과 콜럼버스 미술관을 비롯 스웨덴과 일본 등에서 전시된 바 있다. 현재는 미국 뉴 헤이븐(New Haven)에 위치한 이즘 갤러리(ISM Gallery)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배현진 기자

탄생과 죽음, 환생의 생사윤회를 풍선으로 표현한 '열반(Parinivana)'이라는 독특한 작품이다. 미국 영국 BBC방송은 10월 22일(현지시간), "중국 관리가 무단으로 불교 벽화를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벽화는 중국 북부 랴오닝성 차오양의 절에 있는 270여년 된 그림이다. 청나라 시대 불교 벽화(사진 왼쪽)가 무단으로 도교풍 그림(사진 오른쪽)으로 복원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절 지주의 요청을 받고 이리 한 복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BBC는 "이 문화재는 성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 정부 기준에 따라 복원을 추진했다"며 "복원 사업은 문화유적 복원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나는 기자

중국 관리, 무단으로 불교 벽화 복원

청나라 불교벽화, 도교풍으로 복원해 '파문'

청나라 시대 불교 벽화가 무단으로 도교풍 그림으로 복원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0월 22일(현지시간), "중국 관리가 무단으로 불교 벽화를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벽화는 중국 북부 랴오닝성 차오양의 절에 있는 270여년 된 그림이다. 청나라 시대 불교 벽화(사진 왼쪽)가 무단으로 도교풍 그림(사진 오른쪽)으로 복원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절 지주의 요청을 받고 이리 한 복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BBC는 "이 문화재는 성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 정부 기준에 따라 복원을 추진했다"며 "복원 사업은 문화유적 복원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허술한 복원은 우지아오평이라는 블로거가 온라인에 벽화 복원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나는 기자

이날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선이야기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 방법! 거사풍 불교를 일으켜 세운 백봉 선생의 새말귀 수행!

백봉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안경에 편집/신국판/350쪽/값 15,000원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역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